

북한을 위한 기도

2026년 4월



1.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말 북한의 제9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북한은 미국과는 대화의 의향이 있음을 밝혔지만, 남한은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사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3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나 분쟁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이를 위한 대화나 교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와 우호적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호적인 국제 정세가 조성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무력 증강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경제 안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러우 전쟁 종전 이후 북러 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의 변화가 북한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앞으로의 북미 대화가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국제 정세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증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여러 민생 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등 당국이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외치는 ‘이민위천’이 구호를 넘어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 외래문화 통제를 넘어 ‘사상 개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대회를 통해 시사하였는데, 이러한 북한 당국의 기조가 주민들의 권리를 더 침해하진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유를 포함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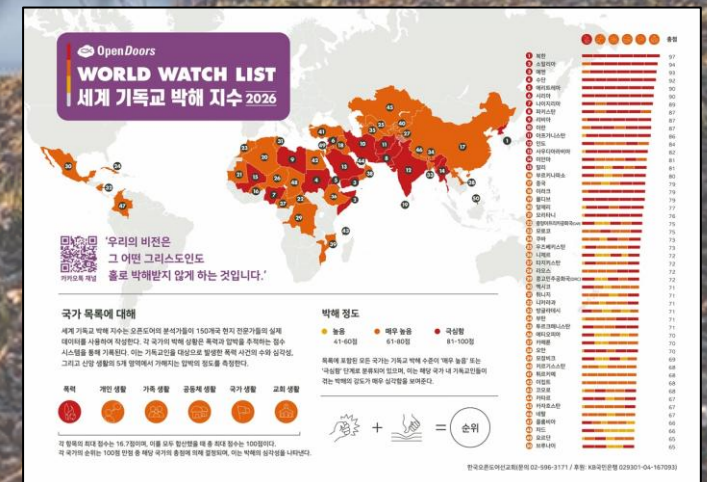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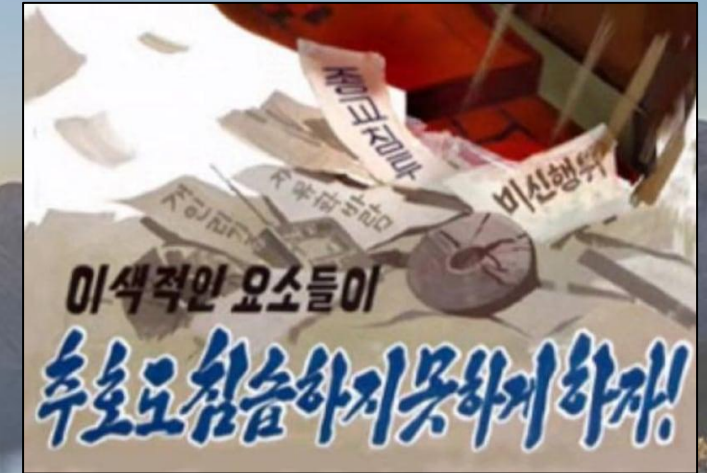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World Watch List 2026)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혔습니다.

더 극심해진 주민 통제로 인한 억압이 증대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적극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종교 물품과 미디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신앙을 가진 개인과 지하 교회를 적발, 추적하는公安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갇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집사님께서는 옥중에서 몸무게가 크게 감소하고 치아가 유실되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믿음으로 수감 생활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귀환을 기뻐하며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갇혀있는 성도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연좌제로 함께 처벌받거나 추방 당한 지하 성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년만에 귀환한 장문석 집사

6.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중·러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운행이 3월 12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중국발 북한 관광도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들립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북한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이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 확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국가 간 외교적 긴장이 선교사의 체류와 사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7.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고, 올해에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비록 통제 아래 있지만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중국 수산물 공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 (Outlaw Ocean Project)



지금, 이뉴스
러시아 간 북한 노동자 하루 18시간 '노예생활'

8. 제3국 북한 선교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에 대한 북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와 함께 시기심과 악한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탈북 여성들을 모함하고 신고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